

집단행동의 사회학 : 자원동원 모델의 성과, 한계 및 전망

김 태 수*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어왔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운동은 사회과학계에서도 진지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학계에서는 자원동원 모델이, 유럽의 학계에서는 신사회운동론이 대두되면서 사회운동은 본격적으로 학계의 논의대상에 편입될 수 있었다. 자원동원 모델은 당시 미국 사회학계의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집단행태론과 대립하면서 올슨의 합리적 행동모델을 토대로, 또 올슨에 의해 제기된 ‘패러독스’를 푸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이론틀을 구축하고 경험적인 연구를 축적해왔다.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자원동원 모델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계산적 합리성에 입각한 모델의 편협성을 탈피하여 신사회운동론과의 교류, 사회심리학과의 ‘화해’ 및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도입하여 연구의 폭과 지평을 넓혔으나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의 성립이라는 난제를 남겨두었다.

주제어: 집단행동, 사회운동, 자원동원론, 신사회운동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시위, 파업, 점거농성, 행진, 집단청원에서 폭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운동과 관련된 제 현상들이 사회과학계의 진지한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사회운동은 질서보다는 무질서, 안정보다는 불안, 예측성보다는 불예측성으로 특징 지워지면서 오랫동안 지배계층 혹은 공안당국에 의해 통제, 심지어 진압되어야 할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한편 19세기 말, 서구 사회과학의 태동기라고 칭할 수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흔히 ‘사회운동’이라고 일컫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론화가 최초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텐느(Taine 1887), 타르드(Tarde), 르봉(Lc Bon 1895)과 같은 학자들은 ‘집단심리학’에 근거하여 사회운동에 관한 해석틀로서 ‘군중심리론’을 제시하였다. 일명 ‘전염이론’으로도 알려져있는 ‘군중심리론’에 의하면 개인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독자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들의 신념과 행동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어떻게 전염되어지는지를 밝히려 하는데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군중심리론’은 이후 학계에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엘리트, 혹은 치안당국이 사회운동에 품고 있는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에 대한 과학적 정당화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었다. 아울러서 덧붙이자면, ‘군중심리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태동한 사회주의 운동의 물결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프랑스 학지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군중심리론’은 1870년 파리코뮌 직후, 프랑스의 엘리트 계층이 대규모 사회운동 앞에서 느낀 ‘정신적 공황상태’의 반영이라는 주장도 새겨보직하다(Barrows 1990).

사회학계에서 사회운동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진지한 논의는 1970년대 말 경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이 시기 거의 동시적으로 미국에서는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의 이름으로, 유럽에서는 신사회운동론(New social movement theory)의 이름으로 각각 상이한 경향이 대두되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후 이 두 모델은 사회운동에 관한 학계의 양대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기할 점은,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서양을 사이에 둔 이 두 사회운동 모델은 상호간의 별다른 접촉이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이다. 해외의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모델들은 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국내에 소개·도입되기에 이른다. 타 전문영역과 비교해 볼 때 유독 사회운동 분야에 있어서 해외이론의 소개가 늦은 이유는 아마 우리의 경우, 80년대 민중·민주 운동적 주관에 기초한 서술·분석방식이 국내의 사회운동 관련 연구를 지배했기 때문에 해외 이론의 도입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최근에 들어서 국내 학계에도 사회운동에 관한 해외의 최신 이론적 경향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물도 축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상기했던 두 ‘패러다임’중 신사회운동 모델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국내학계에서 집중되면서 자원동원 모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¹⁾. 그 이유를 추측하자면, 민주화 이후 한국운동 진영이 봉착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정에서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의 출현과 발전, 그리고 탈근대 담론의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사회운동 모델이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관하여 관련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비판담론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주의와 아카데미즘에 안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자원동원 모델은 국내도입에 있어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1) 국내에서의 신사회운동론에 입각한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권태환·임현진·송호근 2001) 참조.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서구 사회운동이론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90년대의 ‘시대적 요구’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를 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국내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나 해외에서는 아직도 사회운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이론적 틀로써 존재하고 경험적 성과를 축적해온 자원동원 모델에 대한 더욱 진지한 소개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본 글은 우선적으로 자원동원 모델이 태동하게 된 학문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 모델이 미국의 특정한 지적 분위기 및 사회적 맥락에서 이전의 ‘집단행태론’과 어떠한 방식으로 대립하면서 성장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2장). 3장에서는 자원동원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이 ‘패러다임’ 내에 존재하는 두개의 ‘학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통해서 자원동원 모델 전반에 걸친 본격적인 소개, 비판 및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4장에서는 신사회운동 모델의 기본적인 시각 및 문제의식을 살피는 한편 이 모델의 한계와 성과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서 자원동원론에 대한 성찰적 비판을 조명하고, 5장에서는 자원동원론, 심리학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만나는 지점에서 열리는 새로운 사회운동 연구의 지평에 대해서 조망할 것이다.²⁾

2. 자원동원 모델의 성립

미국의 1950년대-1960년대는 요즘 우리가 흔히 사회운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 대상을 ‘주변이론(marginality theories)’ (Hoffer 1954), 집단행태론

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운동 연구의 모든 경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 및 운동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등, 여타 다양한 학계의 논의는 본 논문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Smelser 1962) 및 상대적 박탈이론(Davies 1962; Gurr 1970)에 입각한 설명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이러한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입장은 사회운동을 탈제도적 집단행위로 파악하며 이러한 집단행위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정신상태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아렌트(Arendt 1951)가 최초로 제기하고 콘하우저(Kornhauser 1959)에 의해서 완성된 ‘대중사회론’에서는 현대사회로 인한 공동체 조직의 와해와 개인의 원자화(atomization)가 전체주의적 선동에 허약한 개인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여하간의 집단행동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사회심리학에 기초하고 있었던 집단행태 모델³⁾과의 인식론적·방법론적 단절은 1965년에 발간된 올슨의 저작(Olson 1965)이 계기가 되었다. ‘무임승차(free rider)론’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이론은 사회운동·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박탈감·공격성향이라는 조건반사적 태도로부터 의식적·합리적 행동으로 파악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올슨의 분석은 하나의 역설적 상황에서 출발한다. 다수의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단체행동을 행사하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단체행동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올슨의 시도는 이러한 통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단체행동을 이끌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아무런 집단행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를 비용/효과의 최적화로 간주하는 (고전) 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를 둔 올슨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집단행동은 집

3) 논의의 간편화를 위해서 50-60년대 심리학에 기초한 여러 사회운동 분석모델을 ‘집단행태 모델’로 칭한다.

단체(collective goods)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데 이 집단재는 그 성격상 집단 구성원 중 일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집단행동이 성공하면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무임승차’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점이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 노동자들의 파업의 성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혜택은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뿐 아니라 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까지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라면 파업에 참여해서 자신이 지불해야 될 비용(무노동 무임금, 해고의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뜻이다. 결국 올슨의 논의는 “집단행동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의문 대신에 “객관적으로는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에서 왜 실제적으로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행위자의 계산적 합리성에서 찾으려는 시도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 의문에 대한 해답 찾기가 이후 자원동원론의 핵심적 문제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무임승차’ 현상이 최소화되면서 집단행동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올슨은 이 질문에 대한 일련의 해답을 제시하는데, 첫째,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 ‘무임승차’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경우, 올슨의 논리는 경제학의 한계효용론에 입각하게 되는 데,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는 개개인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때 공헌하는 몫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이탈이 집단행동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 구성원들은 ‘무임승차’보다는 집단재의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된다. 이와 반대로 집단의 규모가 ‘나 혼자쯤은 빠져도’ 될 만큼 큰 경우, 즉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집단행동에의 참여가 운동의 성공여

부에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꺼이 무임승차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전국적, 대규모 소비자운동보다는 소규모, 지역 혹은 직능·이익 집단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동원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째, 조직차원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특정 산업·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클로즈드샵(closed shop) 제도, 그리고 파업당시 비노조 조합원의 작업장 출입을 강제적으로 막는 파업피켓(picket)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조직은 ‘선택적 유인책(selective incentive)’을 통해서 집단행동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선택적 유인책, 혹은 선택적 인센티브란 운동조직에서 조직원들을 집단행동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개별재(individual goods)’로써 집단재와 달리 집단행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조직내에서의 높은 지위의 부여,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공제조합 이용권, 의사협회 같은 직능단체가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1965년에 발간된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가 차후 자원동원 모델이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그의 책은 사회운동 이론에 있어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올슨이 제기한 모델의 이론적 한계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올슨의 이론은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지 않나’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이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행동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4) “[...] 거대한 집단인 경우 한 개인이 이 집단을 위해 공헌할 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공헌은 미미한 수준으로 인식되어지며 따라서 집단 공동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구성원을 강제하거나 외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 집단이 공공재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Olson 1978, 66).

의 이론이 발표된 지 불과 몇 년 후, 미국과 유럽에서의 대규모 사회운동(68운동)이 일어났다는 경험적 사실이 그의 이론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올슨이 제기한 모델은 대규모 사회운동에 대한 해석틀로써 그 적실성에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올슨의 사회운동에 관한 ‘경제학 모델’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익집단, 노조, 직능단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단행동에 관한 분석 모델로써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어쨌든 올슨의 저작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초로 사회운동에 관한 새로운 분석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지배적이었던 집단행태이론의 심리학적 접근방식과의 단절을 가능케 하는 ‘패러다임적 변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올슨이 제기한 집단행동의 ‘패러독스’ 및 ‘선택적 인센티브’의 개념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한 이론적 발전과 경험적 검증의욕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자원동원 모델의 이론적 토대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⁵⁾

70년대 미국사회는 ‘운동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학생운동·흑인운동·여성운동·환경운동과 같은 대규모 사회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당시 사회운동의 대의에 동참, 혹은 공감한 신진 사회학자들은 이들 사회운동을 자신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기존의 지배적인 접근방식인 집단행태이론은 사회운동에 우호적이었던 이들에게는 정치적·심리적, 특히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이론에 근거한 심리분석은 개인적인 박탈감이 어떻게 집단적인 표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었다. 알콜중독·가정폭력·자살 및 범죄행위 또한 박탈감에 대한 개인

5) 대표적인 일례로 갠슨은 미국사회의 대규모 표본집단을 기초로 한 연구조사에서 선택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동조직의 성공률이 82%(선택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 36%에 불과)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Gamson 1975).

적인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이론은 왜 그리고 어떻게 박탈감이 집단행동이나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박탈감-집단행동의 인과관계 규명에 치명적인 이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원인을 운동 참여자의 심리적 박탈감에서 찾으려는 시각, 심지어 사회운동을 사회병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각도에서 사회운동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개념을 쇄신하였다. 초기 오버샬(Oberschall 1973), 갠슨(Gamson 1975), 틸리(Tilly 1976), 맥카시, 잘드(McCarthy & Zald 1973; 1977)와 같은 사회학자들의 주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80년대에 이르러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집단행태이론을 대체하여 지배적인 이론적 준거를 구축하면서 수많은 경험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나갔다.

3. 동원의 경제, 동원의 정치

자원동원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동원(動員, mobilization)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동원이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나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행위 및 군대의 일부나 전부를 전쟁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원래의 뜻을 확장하면 동원은 ‘주어진, 혹은 새로운 삶의 범주를 옹호 혹은 주장하려는 조직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형태의 집합(集合)’(Mann 1991, 94)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자원동원론에서는 동원이 ‘사회운동 및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조직화, 운동건설 및 인적·물적 자원의 축적 및 사용’을 의미하게 되었다.⁶⁾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동원이라는 용어에서

이미 사회운동 및 집단행동은 불만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들의 합리적·전략적 사고를 통한 행동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바꿔놓았다. 과거 집단행위모델은 “왜 운동이 일어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천착하였다면 자원동원 모델은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집단행태론과 대비해서 자원동원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메카시와 잘드의 다음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주장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McCarthy & Zald 1977). “모든 사회에서는 사회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한 불만은 항상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불만은 심지어 운동조직이나 특정 요구의 기획자에 의해 정의되고, 창조되고, 조종되는 것이다.” 이러한 출발점상에서 자원동원론은 기존 집단행태 모델은 한계였던 구조적, 정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운동에 대한 동적인 접근방식을 가능케 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운동 연구에 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의 특정 집단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게 되면서 어떤 집단은 왜 동원된 집단으로 만들어지며 또 다른 집단 - 예를 들면, 노인층, TV시청자, 등등 - 은 왜 동원상태에 이르지 못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운동에 대한 자원동원 모델이 취하는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사회적 불만을 상수로 처리하고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운동조직으로, 사회운동-집단행동은 의도적인 정치과정으로 파악하여 집단행동을 이끄는(동원) 운동 조직 및 행위자의 실천전략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동원의 성격에 대해서 오버샬은, “동원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중·그룹·협회·조직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종종 지속적인 사회적 단위는 지도자·충성심·정체성·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된다.”고 말한다(Oberschall 1973, 102).

고 말할 수 있다. 자원동원 모델을 채택하는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원동원 모델 내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지향점과 상이한 문제의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이 모델 내에는 페로우가 제시한 것처럼 크게 두 개의 경향이 상존하고 있다(Perrow 1979): 하나는 올슨의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더욱 확대·심화시켜서 ‘시장모델’을 도입하여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경제모델’(McCarthy & Zald)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모델’(Oberschall & Tilly)으로써 이 입장은 사회운동을 본질적으로 제도화된 정치활동과 동일한 현상으로 간주한다.⁷⁾

1) ‘시장’으로서의 사회운동

맥카시와 잘드는 사회운동을 “주어진 인구속에서의 의견과 신념의 총체으로써 사회적 구조의 구성요소를 변화시키기 위한 선호를 대변한다”고 정의한다(McCarthy & Zald 1973, 120). 경제학에서의 ‘시장’의 정의에서 유래된 이와 같은 사회운동 정의에 따르면, 사회운동은 어떤 종류의 변화에 대한 요구이며 이것은 완전히 동원된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위한 잠재성에 불과하다. 사회운동조직(social movement organization, SMO)은 이 잠재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SMO는 공급구조이면서 동시에 동원의 원동력이다. 사회운동을 이끄는 조직들은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행동의 자원을 집중하면서 이들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품고있는 막연한 요구나 희망사항이 구체적인 요구주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SMO는 시장에서의 기업의 기능과 유사하게 정의된다: “자신의 목표를 사회운동, 혹은 역사사회운동(counter-social movement)

7) 이 입장은 클라우제비츠식의 표현방식을 빌리자면, “다른 (무질서한) 수단을 통한 질서정연한 정치의 연장이다(The continuation of orderly politics by other (disorderly means)”라고 말할 수 있다.

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조직으로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하나의 동일한 주의, 주장을 지향하는 SMO들은 ‘사회운동 산업(social movement industry, SMI)’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환경운동, 여성운동은 각각의 SMI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각기 SMI 안에는 다수의 환경, 혹은 여성운동 조직이 경쟁적으로 활동한다. 다수의 SMI가 모여서 ‘사회운동 부문(social movement sector, SMS)’을 형성한다. 맥카시와 잘드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 부문의 성장 및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된 사회에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증대된 요구에서 찾는다.⁸⁾

맥카시와 잘드 연구의 독창성은 사회운동에 관한 시장의 비유에 있다. 기보다는 ‘울슨의 패러독스’, 즉 비용/효과의 계산에 의한 ‘선택적 인센티브’로써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운동 참여자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특정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해답을 찾는다. 즉 SMO에게 자신의 시간 및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을 ‘적극적 참여자(constituents)’로 칭하고 이 ‘적극적 참여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SMO의 성공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보는 참여자들이다. 이 경우, 예를 들면,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하는 흑인들을 들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도덕적 참여자들(conscience constituents)’로써 이들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운동의 성공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60년대 미국 흑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백인 대학생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⁹⁾ ‘도덕적 참여자’들에 대한 발견은 울슨 패러독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맥카시와 잘드에

8) 잘드와 맥카시의 이러한 주장에서 차후에 논의될 신사회운동론과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9) 1964년 여름, 북미 대도시지역 백인 대학생들이 조직했던 미시시피주에서의 흑인들의 선거 명부등록 캠페인에 대한 맥카담의 연구 참조(Doug McAdam 1988).

의하면, 이들이 외부에서 제공하는 자원이 흑인운동에 있어서 집단행동의 비용을 낮추고 참여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은 60-70년대 미국 흑인운동사에서 어렵지 않게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흑인운동 쇠퇴의 원인에 있어서도 새로운 설명이 가능하다.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흑인운동의 쇠퇴는 이 시기 블랙팬더(Blacks Panthers)로 대표되는 흑인운동의 급진화, 즉 흑인운동이념으로 새로이 대두된 계급투쟁과 인종투쟁 담론으로 인해 도회지 백인 자유주의자들의 참여와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전체 흑인 인권운동의 쇠퇴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McAdam 1982).

맥카시와 잘드의 연구는 선택적 인센티브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동기가 집단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올슨의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맥카시와 잘드가 ‘도덕적 참여자’를 모델에 도입함으로써 올슨의 패러독스를 풀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치명적인 이론적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점일 것이다. 부연하자면, 문제의 ‘도덕적 참여자’는 과연 무슨 동기로 운동에 참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맥카시와 잘드는 올슨이 초석을 놓은 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인(homo oeconomicus)’들로 구성된 집단행동의 경제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이 ‘경제인’ 모델에 난데없이 세속적인 수치타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도입됨으로써 ‘경제인’의 역명제가 ‘경제모델’에 공존하는 이론적인 모순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2) 정치와 동원

오버샬은 맥카시와 잘드의 ‘경제모델’과는 달리 사회학 고유의 문제틀을 사용하여 올슨이 제시한 단순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Oberschall 120). 그는 특정집단이 가질 수 있는 집단행동의 잠재성과 양태의 유형을 그 집단의 대외적 관계(수직적 통합/분리)와 내적 조직양식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표 1〉 Oberschall의 집단행동 유형

상위집단/권력과의 관계	집단 내부조직의 특성		
	공동체 모델	조직의 부재	협회적 모델
통합	A	B	C
분리	D	E	F

도표에서의 세로축은 특정 집단이 상위집단 및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통합/분리로 나뉘며 가로축은 그 집단의 내부조직의 특성에 따라 공동체 모델/조직의 부재/협회적 모델로 구분된다. 상위 칸부터 설명을 하자면, A의 경우에는 해당 집단이 자신의 대변자가 상위집단/권력층에 존재하는 경우로써 18세기 영국에서 젠트리 계급이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경우를 실례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B의 경우에는 집단 내부의 약한 결속력으로 인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행동보다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띠며 권력 상층부와의 연계는 개개인의 사적(私的) 연줄에 의한 후원-복종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남부 이탈리아 농촌사회에서 볼 수 있는 마피아 모델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C의 예로는 노동조합, 직능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이해관철 통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장 완성적인 예로는 노사정 합의체가 정착된 코포라티즘일 것이다.

하위 칸의 경우에는 상층집단/권력과의 단절로 인하여 집단의 요구주장은 강력한 집단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D의 경우, 상부와 단절된 공동체는 그 집단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이 감지되면 신속하고 강력한 동원이 이루어

어진다. E의 경우는 약한 대외적 통합과 약한 내부 결속이 특징으로 집단 행동의 빈도수는 매우 적지만 만약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며 폭력적인 양상을 띤다. 60년대 미국 흑인폭동을 예로 들 수 있다. F의 경우 E와 유사하지만 집단내부의 연결망의 조직, 운동에 있어서의 행동강령 및 기획을 담당하는 지도자와 조직이 나타나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부터 천년왕국설에 기초한 종교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자원동원 모델의 구축에 있어서 오버샬의 공헌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국한되어있던 올슨, 그리고 맥카시와 잘드의 모델에서 나타나는 경제학적 환원론을 탈피하여 사회구조 및 집단의 존재양식에 대한 변수를 도입하여 자원동원론을 사회학의 고유영역으로 굳히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사회학자인 톨리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백년 동안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운동, 동원, 집단행동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구한다. 초기 자원동원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원에서 혁명으로(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에서 그는 집단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어떠한 형태의 연대를 형성하는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거시 사회적 상황은 어떻게 집단적 저항운동(protestation)을 조장 혹은 가로막을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첫째, 둘째 질문과 관련하여 톨리는 집단-조직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우선 맥카시와 잘드는 조직을 자원을 모으고 목표와 전략을 정하는 조직 구조(협회, 노조)로써 정의한다. 오버샬은 여기에다가 집단내의 다양한 연대적 관계를 대입시켰다. 톨리는 조직된 집단과 사회성(sociability)의 관련성을 연계하여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집단-조직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첫째 변수는 자생적 사회성의 연계망을 뜻하는데 이를 ‘netness’로 개념화하였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 모인 군중의 사회성의 정도는 최하단계이고 자생

단체 및 협회 회원들의 사회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catness’라는 신조어로 범주화한 둘째변수는 ‘category’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범주적 정체성, 즉 객관적인 특징으로 범주화된 집단을 의미한다. 여성, 한국인, 흑인, 무슬만, 노동자 등이 바로 이런 범주에 해당된다. 이 두 가지 영역의 사회성은 ‘catnet’(catness+netness)로 조합을 이룰 수 있으며 두 변수가 서로 수렴함으로써 ‘catnet’의 정도는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양한 범주와 직업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보다는 동일 범주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통해 집단 정체성, 회원간의 연대의식 및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질문에 대해서 톨리는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사회행위자들이 전략을 결정하는 방식은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된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합리적 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기원을 역사속에서 찾아낸다. 즉 합리성은 시장논리, 관료제, 계약제도의 발전 및 보편화과정을 통해서 현대 인간사회의 문화와 정신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톨리는 ‘경제적 인간 Homo oeconomicus’의 성향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었는지를 조명한다. 또한 톨리는 동원된 행위자는 비용/효과의 최적화에만 입각한 합리성의 포로가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올슨의 기본명제, 즉 행위자는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한 행동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여러가지 경우에서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사회운동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입각한 합리성 이외에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리고 집단재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략이 존재한다. 가장 비근한 예로 9·11 테러 참여자들의 동기에 대해서 올슨의 모델은 아무런 설명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질문과 관련하여서 톨리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사회운동을 정치사회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집단을 정치적 결정 혹은 정책결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집단

(participants)과 이러한 접근이 불가능한 집단(challengers)으로 구분하면서 후자를 사회운동의 고유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정치적인 의미를 재고하였다. 또한 사회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환경요인에 대한 고려는 차후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¹⁰⁾

3) 평가

7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원동원 모델이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이론적 준거로서 부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모델은 박탈감(frustration)이라는 모호하고 검증 불가능한 심리학적 개념에 집착한 집단행태론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자원동원론은 올슨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계기로 경험적 연구의 축적과 이론적 심화를 거쳐 새로운 사회운동 분석의 지평을 열었으므로 이 분야를 사회심리학자나 경제학자의 영역으로 넘겨주지 않고 사회학의 주요 하위 분과영역으로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불만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집단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단순논리에 벗어나서 사회집단에 따라, 다시 말하면 해당 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사회집단들이 집단행동을 행사하기 위한 동원 능력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공헌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운동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여 운동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전략적 상호작용 차원에서 이끌어내고 사회운동에 있어서 사회운동 조직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다. 넷째, 규범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을 사회 시스템상의 기능장애, 상대적 박탈감,

10)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Tarrow(1989), Kitschelt(1988)를 들 수 있다.

혹은 대중사회의 병리현상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적·사회적 현상으로 격상시키는데 공헌하였다는 점이다.

자원동원론이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자원동원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자원’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버살은 자원이 “물질적 자원부터 비물질적 자원(권위, 도덕적 책임감, 신념, 우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를 망라”한다고 지적한다(Obershall 1973, 28). 톨리에 의하면 자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유익한 모든 것”(Tilly 1978, 7)을 뜻한다. 이렇듯이 행동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자원으로 간주해버리면 자원의 개념은 사실 토폴로지(tautology)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자원동원론의 더욱 근본적인 모순은 개인의 참여동기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도 올슨의 패러독스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 패러독스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었었다. 첫째, 맥카시와 잘드의 시도에서 나타나듯이, 운동 행위자들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행동하는 행위자와 권력의 획득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적 기획자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왜 어떤 이들은 정치적 기획가가 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오버살과 톨리의 저작에서 보이듯이 기존의 연대망의 존재나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에 이론적 기반을 둔 자원동원모델의 내부모순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4. 신사회운동론 : 한계와 성과

자원동원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면, 신사회운동론은 유럽에서 지배적인 사회운동 연구모델이 되어왔다. ‘신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은 60년대 말-7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이론화 작업과 일련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올슨의 저작이 자원동원론 성립의 시발점이 되었다면 잉글하트의 저작(Inglehart 1977)은 신사회운동 모델이 태동하는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잉글하트에 의하면,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한 서방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물질적인 기본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목표가 ‘탈물질적 가치(post-material values)’를 지향한다고 진단한다. 즉, 양(量)보다는 질(質)에 대한 추구 그리고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볼 때, 임금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주장보다는 통제로부터의 자유 및 자율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잉글하트는 이와 같이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탈물질론적’ 전이(轉移)를 사회구성원들이 정체성과 자기존엄성의 문제를 탐닉하게 되는 경향과 연계시킨다. 즉 현대사회의 구성원의 특징적 현상인 고학력화는 위계적인 조직질서를 거부하고 권위에의 무조건적 위임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서부유럽 6개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증명해 보였다. 신사회운동론은 잉글하트가 제시한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가치 및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위에 성립·발전되었다.

신사회운동론에 입각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독일인데 반하여 초기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근간을 구축한 대표적인 학자는 이탈리아의 멜루치(Melucci 1977)와 프랑스의 투렌느(Touraine 1978; 1980)를 들 수 있다. 신사회운동이란 개념은 60년대 말-70년대 초반 서구에서 발생한 일련의

저항운동(페미니즘,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지역운동, 학생운동, 반문화운동, 반제도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사회운동과 운동형태, 주의주장 및 조직의 유사점을 보이는 운동을 통칭 신사회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신사회운동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접두어인 신(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느비는 4가지 차원에서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운동’과의 단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Nevcu 1996). 첫째, 신사회운동이 내세우는 가치와 주장이 새롭다는 것이다. ‘구사회운동’의 주요 목표가 부의 분배와 사회 상층부의 정책결정 공간에의 진입에 있었다면, 신사회운동은 위로부터의 통제를 거부하고 집단의 자율성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사회운동 조직의 요구주장은 권력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사회운동’에 비해서 더욱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핵발전소 폐지, 혹은 동성애 차별법 폐지 등의 주장은 임금인상 요구보다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사회운동의 목표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명확한 자기표현을 수반한다. 이와 관련해서 멜루치는 신사회운동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를 육체, 욕망,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여성운동, 동성애 운동, 생태운동..)에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신사회운동의 가치 지향성은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가치인 계산적인 합리성을 거부함으로써 과거의 사회운동보다 더욱 급진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둘째, 조직구조와 집단행동의 양태에 있어서도 신사회운동은 과거와의 단절을 보여준다. 이전의 정당조직이나 노동조합 조직과는 달리 신사회운동 조직은 위계적인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거부하면서 리더에 대한 일반운동원(회원)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신사회운동 조직은 분권화와 하부조직의 자율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

분의 신사회운동 조직은 단일 이슈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점거, 단식과 같은 창의성을 보여주고 행동양식이 놀이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는 점이다.

신사회운동의 세 번째 변별점은 정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구사회운동’의 경우, 서구에서는 19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노조-정당조직을 중심으로 운동의 기본적 틀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쟁취 혹은 ‘폴리티(polity)’에의 접근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었었다. 그러나 신사회운동에서는 더 이상 국가에 대한 도전 혹은 국가기구의 정복이 운동의 목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항해서 자율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 국가로부터 개인적 사회성의 형태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것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다.¹¹⁾

네 번째 특징은 신사회운동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의 운동의 특징을 ‘계급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이와는 다른 정체성이 사회운동의 주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계급정체성이 현대사회운동에서 희석되는 경향은 운동의 주체가 과거의 노동자·농민에서 고학력 중간층으로 전환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된다.

신사회운동론은 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일련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예리한 분석적 통찰을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이 태어난지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신사회운동론이 사회운동 분석에 있어서 아직도 상당부분 적실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¹²⁾

11) 이러한 주장은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확대라는 테마와 연결된다. 신사회운동론과 시민사회론을 연계한 본격적인 논의는 (Cohen & Arato 1993) 참조.

12) 신사회운동의 ‘새로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는 1987년에 열린 Tallahassee 콜로키움에 모인 20여명의 관련 분야 사회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

첫째,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신사회운동론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새로운 매혹에 너무 강하게 심취해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들이 ‘새롭다’고 일컫는 것 중 상당수는 이미 ‘구사회운동’의 다양한 발전과정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앙조직에 대한 하부조직의 자율성은 노동운동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더라도 80년대 학생운동이나 민중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하위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도 있다¹³⁾. 또한 20세기 초 노동운동의 태동기 시절부터 주요 요구항목 중의 하나였던 8시간 노동제도는 질(質)적인 요구가 아니었을까? 또 신사회운동의 독특한 운동전술적 쇄신이라고 평가되는 농성(sit-in), 점거, 시가행진과 같은 양태는 이미 1930년대를 유럽의 사회운동사에서 비일비재하게 관측되는 공장점거, 실업자 행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까? 또 운동이 내세우는 가치의 반제도성과 비타협성으로 급진적으로 평가받던 환경운동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기존 정치시스템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¹⁴⁾

둘째, 신사회운동론은 이론화 당시 유행하였던 특정 형태의 동원 및 집단행동의 중요성 및 지속성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 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운동·반문화(counter-culture)운동 및 지역·생태공동체운동 혹은 푸코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감옥·정신병

다. 이 콜로키움에서 제기된 논점들은 3년 후 출간되었다(Dalton & Kuechler 1990).

13) 다만 초기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하부조직의 ‘자율성’은 노동운동조직이 중앙집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80년대 학생운동 및 민중운동의 경우에서도 하부조직과 ‘부문운동’의 ‘자율성’은 민중운동 혹은 학생운동 조직이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중앙집권화하면서 운동 지도부에 의해 폐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4) 피조르노는 신사회운동론이 대두되는 시점부터 이 이론이 주장하는 ‘새로움’에 대해서 일찍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Pizzorno 1978).

원 감시를 통한 반제도운동 등은 80년대에 들어 이미 쇠락하거나 자취를 감추었다.¹⁵⁾ 오히려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으로써 ‘유물론적’인 그리고 양(量)적인 요구가 사회운동에 있어서 증가추세가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필리올은 8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임금, 고용, 분배와 관련된 ‘유물론적’ 주장이 이 시대 프랑스사회에서 압도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Fillieule 1996).

셋째, 신사회운동론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대상과 맺는 특정한 관계방식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든스는 ‘이중의 해석학(double hermeneutic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연구자는 행위자의 담론을 해석하는 반면, 행위자는 자신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또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담론을 채용한다고 말한다(Giddens 1987, 43). 이러한 관점에서 투렌느는 사회학이 사회운동에 직접 개입하여 운동의 의미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적 진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를 ‘사회학적 개입(intervention sociologique)’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한다(Touraine 1978). 이러한 입장은 연구대상과의 친밀성을 강화해줌으로써 대상에 대한 깊은 인식도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대상과의 ‘거리두기’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포할 수 있다. 특히 신사회운동론의 경우, 운동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수준은 운동분야와 학문분야간의 담론의

15) 자원동원론자인 타로우도 신사회운동론의 주요 테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 “[68운동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계급투쟁의 종말이나 혁명의 종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 세대전에 개화했던 다수의 신사회운동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이다. 다른 운동들은 이익단체로 변모하였으며 또 다른 운동집단은 정당으로 탈바꿈하면서 제도화의 길을 걸었다. 비록 탈물질적인 가치가 선진산업사회의 의식 속에 착근되어있다고 해도 (...)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새로운 정치적 노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했다고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Tarrow 1990, 253).

순환성과 상호침투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결국 이렇게 강한 담론 순환성으로 인하여 신사회운동론은 객관적 분석보다는 진정한(신)사회운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경도되면서 지나치게 규범적인 경향으로 흐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신사회운동 모델에 대한 한계 및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신사회운동 모델이 제시하는 통찰적·반성적 시각이 최근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신사회운동론의 유효성은 이미 시효가 말소되어버린 ‘새로움’에 대한 새삼스러운 논의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80년대 중반 무렵, 상상력의 빈곤과 이론적 답보상태에 빠진 자원동원 모델의 자성을 이 끌어내고 사회운동연구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연구지평의 폭을 넓혀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미시적 동원과정의 분석에 치중되어왔던 자원동원론의 주된 흐름은 이를 계기로 해서 지식, 과학기술 및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거시적 성찰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 전반의 특징에 대한 신사회운동론의 비판적인 접근방식은 인간의 계산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자원동원론 고유의 편협한 분석틀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을 자극함으로써 자원동원론에 대한 일련의 내부비판을 도출하고 사회운동 연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자원동원모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주의적’ 집착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바, 연구의 당면과제가 ‘운동의 성공사례’에 집중되면서 전략적 행동차원에서의 분석에

16) ‘운동담론’과 ‘학문담론’의 순환성 및 상호침투성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80년대 민주·민중운동 담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담론의 순환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80년대 민중운동 담론과 90년대 신사회운동 담론 간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90년대, 민중운동 담론을 대체할 만한 담론에 대한 학계 및 일부 운동행위자들의 증가된 욕구를 신사회운동론이 채워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치우친 나머지 자원동원 모델에 입각한 많은 연구들이 ‘운동기금모금을 위한 매뉴얼’로 전략하고 있다는 맥커담의 질타는 충분히 새겨볼 직하다 (McAdam 1982). 나아가서 자원동원 모델에서 보이는 행위자의 전략적·계산적 차원에 경도되는 경향은 이들의 실제적인 체험, 감정 및 운동참여의 내적 동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부재로 귀결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신사회운동 모델이 제시한 사회운동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및 정치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⁷⁾

5. 새로운 연구 지평 (사회심리학과와의 재회)

편협적인 계산적 합리성에 기초한 자원동원 모델의 한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다양한 이론과 접근방식이 도입되면서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심리학과의 뒤늦은 재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앞서 살폈듯이 초기 자원동원 모델의 구축은 집단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특정한 심리상태(상대적 박탈이론)에서 찾으려는 집단행태이론의 대척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연구에 있어서 여하한 심리학적 경향을 배척하였다. 이는 자원동원 모델이 집단행동의 근본 동기를 행위자의 계산적 합리성에 두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운동에의 참여과정 보다는 다양한 운동자원의 관리와 통제를 전담하는 운동조직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새로운 경향의 사회운동이 유럽에서 전개되면서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원동원모델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유럽의 연구자들은 이를 긴장과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로써 설명하려 했

17) 신사회운동론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Larana, Johnston, Gusfield eds. 1994)를 참조.

다. 그러나 개인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동기 및 과정에 관해서는 이 두 모델 모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합리성에 입각한 자원동원 모델의 경우, 모든 행위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동일하게 인지를 하며 행동이 초래하는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전제한다. 신사회운동론의 경우에는 긴장의 구조적 기원을 조명하지만 이 긴장을 행위자가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찾기는 자원동원 모델과 신사회운동론의 외곽에 존재하는 심리학과 상징적 상호행위이론의 도입을 통해 진행되었다. 사회운동의 발생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인지하는 방식의 변화, 즉 자포자기 상태에서 뭔가 부당하다는 방식으로 의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이미 1969년 터너에 의해 지적되기도 하였다(Turner 1969). 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터너와 킬리안(Turner & Killian 1972)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집단적인 정의(定意)는 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규범의 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또한 객관적인 구조적 조건과도 연결된다고 밝힌다. 즉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발생과 기존의 규범의 괴리 사이에서 새로운 ‘상황적 규범’이 운동의 발생과정에서 부상한다는 것이다. 매커담은 이 과정을 “인지적 해방(cognitive liberation)”으로 개념화 하면서 이를 자신의 고안해 낸 정치과정 모델에서 사회운동의 발생조건에 포함시켰다(Mac Adam 1982, 49). 이 지점에서 이론적인 도약은 고프만의 ‘프레임 분석’ 개념(Goffman 1974)을 자신의 연구에 도입한 갠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Gamson, Fireman, Rytina 1982).¹⁸⁾ 고프만은 사람들이 기존의 지배적인 질서에 항거하기 위한 제 조건을 탐구하면서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행동은 사회 규범이 구조화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정치적 무의식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18) 집단행동 및 동원의 사회학에 끼친 고프만의 영향에 대한 논의 및 평가는 Gamson(1988)과 Snow et al.(1986) 참조.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프레임 혹은 ‘해석틀’ 분석은 사건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다양한 원칙들을 해부하고 비교함으로써 상황의 전체적 의미를 포착하게 한다. 깬슨은 고프만이 제시한 4개의 기본적 해석틀 중에서 ‘불의(不義)의 틀(unjust frame)’, 즉 기존의 권위 체제는 부당하다는 정의 하에 이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방식을 옹호하는 해석틀을 주로 그의 연구에 차용하면서 권력에 대한 항거는 이 ‘불의의 틀’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면서 미시(微時)적 수준에서의 동원과정에 자신의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¹⁹⁾

이와 같이 매커덤과 깬슨을 필두로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심리-인지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최근 사회운동 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였다(Ferree & Miller 1985; Klandermans 1984; 1988; Snow et al. 1986; Snow & Benford 1988).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위에 열거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모두 소개하는 대신 이들이 공유하는 기본적 시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 사람은 현실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행동한다. 이 시각은 설득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운동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클란더만은 “지각되어지는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운동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이들의 적대자들도 이 지점에 관여한다. 모든 동원운동에서 설득은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의 설득의 측면에서 볼 때, 동원운동의 효과는 참여의 결정적 요소이다”라고 주장한다(Klandermans 1984, 584). 스노우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운동조직이 다양한 상호작용과 소통과정을 통해서 ‘해석틀’을 바꾸면서 동원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것을 보여준다(Snow

19) 깬슨의 연구도 몇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그의 미시분석은 행위자의 인지적·해석적 수준에 갇힘으로써 동원에 있어서의 대외적 환경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미시분석에서는 미시수준(개개인의 참여)에서 거시수준(집단의 정치적 행위)으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et al. 1986). 따라서 운동조직에 의한 상징조작이 참여자의 인지적 전환, 연대의식의 강화 및 새로운 정체성의 창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었던 상징조작에 대한 분석으로 사회운동 연구의 방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²⁰⁾

6. 결론

본론의 상당 부분을 논의전개의 명확성을 위해서 자원동원론과 신사회운동론의 대립을 한 축으로 두 개의 ‘패러다임’을 이분법적으로 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이 두 ‘패러다임’의 경계는 날이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간의 상호 교류는 양측 학자들의 공동연구의 방식으로(Klandermans B., Kriesi H., Tarrow S. eds. 1988), 혹은 유럽의 일부 신사회운동론자들이 자원동원모형을 자신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Klandermans 1984; 1986; Kitschelt 1985; 1988)

또한 집단행태이론의 일부 이론들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심리학에서 파생된 다양한 동원 모델들이 사회운동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현실은 자원동원론의 성립초기를 상기한다면 매우 파격적인 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이 점은 자원동원론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작용된 귀결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즉 자원동원론에 내포된 이론적 한계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사회심리학에 눈을 뜨게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동원론이 구축해 놓은 이론적·경험적 성과, 더 나아

20) 언어의 전략적 사용을 통한 상징조작의 연구는 Edelman(1977), Gamson(1984) 그리고 연출된 행위, 의식(儀式)의 발명 및 재생을 통한 상징조작에 관한 연구는 Pizzorno(1986), Edelman(1969; 1971) 참조.

가서 정치적 성과(사회운동과 집단행동이 행위자들의 비정상적인 정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로 인한 자신감이 과거 사회심리학에 대한 배타적 자세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초기 사회운동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학문적인 분석조차도 정치적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었던 시기를 상기한다면 현재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의 입지는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특히 자원동원론에 의해 주도된 이론적 논의의 심화와 경험적 연구의 축적은 사회운동 연구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객관성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분야에서 현재 난무하는 상이한 인식론에 기초한 다양하고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접근방식을 이론적으로 일관성을 담보한 틀에 통합하는 난제가 아직 연구자들의 미래의 짐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권태한 · 임현진 · 송호근 공편. 2001.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기든스, 앤서니. 황명주 · 정희태 · 권진현 공역. 1998. 『사회구성론』. 서울: 저자 아카데미.
- Arendt, H. 1972. *Le système totalitaire*. Paris: Seuil. (1er éd., 1951)
- Barrows, S. 1990. *Miroirs déformants*. Paris: Aubier.
- Cohen, J. 1985. "Strategy of Identity: New Theoretical Paradigms and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 663-716.
- Cohen, J. &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 Dalton, R. & Kuechler M. (eds.). 1990.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ies*. London: Polity Press.
- (윤병철 · 한상필 공역 1996.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서울: 한올아카데미).
- Davies, J. 1962.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5-19.
- Edelman, M. 1969. "Escalation and Ritualization of Political Conflic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3. 231-245.
- Edelman, M. 1971. *Politics as a Symbolic 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Edelman, M. 1977. *Political Language : Words that Succeed, and Policies that Fail*. New York: Academic Press.
- Ferree, M. & Miller, F.D. 1985. "Mobilization and Meaning : Toward an Integration of Social Psychological and Resourc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Inquiry*. 55. 38-62.
- Fillieule, O. 1996. *Stratégie de la rue*. Paris: Presse de la FNSP.
- Gamson, W. 1975.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Homewood: The Dorsey Press.
- Gamson, W., Fireman B., Rytina S. 1982. *Encounters with Unjust Authorities*. Homewood: the Dorsey Press.
- Gamson, W. 1988. "Le Legs of Goffman à la sociologie politique." *Politix*. 4(3). 71-80.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per Row.
- Gurr, T.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ffer, E. 1951. *The True Believer*. New York: American Library.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tschelt, H. 1985. "New Social Movements in Western Germany and the Unites States."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5. Greenwich: JAI. 273-324.
- Kitschelt, H. 1988. "Organization and Strategy in Belgian and West German

- Ecology Parties." *Comparative Politics*. 20. 127-154.
- Klandermans, B. 1984.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Social Psychological Expansions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583-600.
- Klandermans, B. 1986. "New Social Movements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 European and the American Approach."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 4. 13-27.
- Klandermans, B., Kriesi H., Tarrow S. (eds). 1988. *From Structure to Action: Comparing Social Movement Research Across Cultures*. Greenwich: JAI.
- Kornhauser, W. 1959.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Glencoe: The Free Press.
- Larana, E., Johnston, H., Gusfield J. (eds.). 1994. *New Social Movements: from Ideology to Identity*.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Le Bon, G. 1988. *Psychologie de Foules*. Paris: PUF. Quadrige (1er édition en 1895)
- Lapeyronnie, D. 1988. "Mouvements sociaux et action politique: Existe-t-il une théorie de la mobilisation des ressources?"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29. 593-619.
- Mann, P. 1991. *L'Action collective, Mobilisation et organisation des minorités actives*. Paris: Armand Colin.
- McCarthy, J. and Zald, M. 1973. *The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America: Professionaliz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N.J.: General Learning Corporation.
- McCarthy, J. and Zald, M.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1212-1239.
- McAdam, D.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 D. 1988. "Micro-Mobilization Context and Recruitment to Activism." In Klandermans, B., Kriesi, H., Tarrow, S. (eds.). *From Structure to Action: Comparing Social Movement Research across Cultures*. Greenwich Conn: JAI. 125-154.

- Melucci, A. 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 199-226.
- Neveu, E. 1996. *Sociologie des mouvements sociaux*. Paris: La découverte.
- Oberschall, A. 1973. *Social Conflicts and Social Movements*. New Jersey: Prentice Hall.
- Olson, M. 1987. *Logique de l'action collective*. Paris: PUF. (original edition 196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errow, Ch. 1979. "The Sixties Observed." In Zald M. & Mac Carthy J. (ed.). *The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Mass: Winthrop.
- Pizzorno, A. 1978. "Political Exchange and Collective Identity in Industrial Conflict." In Crouch C. & Pizzorno A. (eds.). *The Resurgence of Class Conflict in Western Europe Since 1968*. 2. London: MacMillan. 277-298.
- Pizzorno, A. 1986. "Some other Kinds of Otherness : A Critic of 'Rational Choice' theories." in Foxley, A., McPherson, M & O'Donnell, G. (eds.). *Development, Democracy and the Art of Trespassing. Essays in Honor of A. Hirschman*, Notre-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Dame Press.
- Smelser, N. 1962.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London: Routledge.
- Snow, D., Rochford Jr. B, Worden S.K, Benford 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464-481.
- Snow, D. & Benford R.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 Klandermans B., Kriesi, H., Tarrow, S. (eds.). 1988. *From Structure to Action: Comparing Social Movement Research Across Cultures*. Greenwich: JAI. 197-218.
- Tarrow, S. 1989. *Democracy and Disorder: Protest and Politics in Italy 1965-197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rrow, S. 1990. "The Phantom at the Opera: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of the 1960' and 1970' in Italy." In Dalton, R. & Kuechler, M.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Oxford: Polity Press. 251-276.

- Taine, H. 1990. *Les Origines de la France contemporaine*, Paris: R. Laffont, coll. Bouquins (Edition originale en 1887-1888. 1. : *L'Ancien Régime*, Paris, Hachette, 1887; 2: *La Révolution*, Paris, Hachette, 1888).
- Tilly, Ch. 1976.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Mass: Addison-Wesley.
- Touraine, A. 1978. *La Voix et le regard*. Paris: Le Seuil.
- Turner, R.T. 1969. "The Public Perception of Protes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15-831.
- Turner, R.T. & Killian, L.M. 1972. *Collective Behavior*.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